

• 고등교육 자료실 II

대학교육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하라

-대학교육의 미래 : 이상, 현실 그리고 시장의 위험-

이연택 |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장
‘대학교육의 미래 : 이상, 현실 그리고 시장의 위험’ 편역자

“이 변화의 시기에 효과적이고 공공적인 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대학은 사회의 위대한 작품 중 하나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기에 달려 있다.” -프랭크 뉴먼 외 / ‘대학교육의 미래’

경쟁하려면 더욱 자율이 필요하다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학교육계가 흥분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또 하나의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우선, 대학입시에서 대학은 더욱 많은 선발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반면에,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야기될 공교육의 붕괴와 사회유동성을 염려하는 측에서는 이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친화적 실용주의를 앞세운 신정부 체제하에서 “경쟁하려면 자율이 더욱 필요하다”는 명제는 더욱 명분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근자에 이르러 우리 대학들은 경쟁력의 위기를 지적받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각종 국제평가지수에서 한참 부진한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저명학술지 발표논문 순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각종 대학평가가 봇물을 이루어 대학들은 저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순위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순위가 곧 대학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 대학들이 이렇게 자율과 경쟁을 화두로 대학의 발전을 얘기할 때, 프랭크 뉴먼(Frank Newman)과 그의 동료들이 저술한 「대학교육의 미래: 이상, 현실 그리고 시장의 위험」(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Rhetoric, Reality, and the Risks of the Market)은 우리 보다 앞선 미국 대학들을 향하여 시장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의 대표 저자인 프랭크 뉴먼은 미국 교육계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1974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 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1999년까지 14년간 미국교육위원회 회장을 맡아왔다. 최근에는 「미래 프로젝트」라는 연구팀의 대표로서 2000년부터 4년간 미국 대학교육시스템을 연구한 바 있으며, 이 책은 그 결과물에 해당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연구과정에서 현재 미국 대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원동력을 하나씩 다루었으며, 또한 변화의 증거를 제시했고, 변화의 핵심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저자들은 “대학교육의 공적 목적이 점차 손상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저자들은 “미국은 현재 대학교육이 단지 사적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저소득층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자가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캠퍼스가 복잡한 사회문제를 개방적이고 사려깊게 토론하는 일은 학생이나 연구자가 대중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준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학교육에 대한 그들의 기본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저자들이 반시장주의자는 결코 아니다. 저자들은 “대학교육 시장은 이미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방법에 주목하지 않았다. 문제는 대학교육이 신중하게 시장체계를 잡아가느냐 아니면 무계획적으로 어렵게 변하느냐 하는 점이다.” 하며 그들의 저술의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들은 소위 요즘 회자되고 있는 ‘Friendly’라는 용어를 붙여서 시장 Friendly, 즉 시장친화적 지향을 보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대학교육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틈새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변혁기의 대학교육과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경쟁자들을 다루고 있으며, 2부에서는 그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시장의 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점차 커지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틈을 들여다보고, 대중과 정치지도자 그리고 학계가 보는 대학교육의 입장 차이를 살펴본다. 3부에서는 자율과 책임의 기준에서 네 가지 정책, 사회협약, 학습권, 접근성, 교육과 서비스를 위한 경쟁적 보조금 정책을 제시한다. 4부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학의 전략과 기회의 10년을 조명한다.

먼저, 저자들은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로 전통적인 비영리대학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심화, 둘째로 영리목적 학위수여대학, 가상프로그램 대학들, 그리고 기업대학 등 새롭게 등장한 대학교육 공급자들이 미치는 영향, 셋째로 디지털 기술의 영향, 넷째로 대학교육의 세계화, 다섯째로 정치지도자들이 대학교

육을 시장전체에 맡기려는 경쟁심화 등”이다. 저자들은 그중에서도 대학교육에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시장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정책입안자들의 태도를 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요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대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 대학들에서도 순위경쟁이 이미 심화되고 있으며, 순수 영리목적의 대학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겠지만 사이버대학이나 기업 대학들과의 경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국제교류에 나서고 해외 유학생유치 및 해외 분교설치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완화 및 폐지를 통한 자율시스템 혹은 시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요인 가운데 시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강력한 변화의 힘을 차가운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막연한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책의 저자들은 계획적이지 못한 대학자율화의 문제점을 대학교육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틈새라는 표현으로 적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학습의 문제를 지적한다. “학습을 향상시키려면, 대학은 먼저 학생들이 얼마나 배우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려면 교수진의 학문적 명성처럼 관련이 적은 대리 평가보다는 실질적인 학습에 초점을 맞추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효율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들은 효율증대가 아니라 수입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윌리엄 보몰(william Baumol)이 “비용병(cost disease)”라고 지칭하였듯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만연되어 있다. 최근 하버드 대학의 경우, “일부 졸업생 그룹에서 하버드대는 비용절감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동창생들에게 훨씬 더 많이 기부하라고 요구하고, 늘어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학비를 올린다.”는 주장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공감감이 간다.

이밖에도 연구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연구 후원금 유혹이 학문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학의 사회적 비판가로서의 역할, 민주시민 교육자로서의 역할 등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대학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대학입시 자율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대학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같은 맥락에서 저자들은 시장시스템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 대학 스포츠를 든다. “대학 스포츠 팀이 생긴 원래의 목적은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기회의 제공이었으며, 남학생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고, 스포츠 정신과 협동 정신, 승패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게 하며, 학교에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뉴욕타임즈 스포츠기자인 하비 애러튼(Harvey Araton)은 “대학 스포츠는 오래전에 생기를 잃은 풋내기들의 연습 게임이자, 대학교육의 진면목을 지켜주는 커닝 타락시키는 천박한 시스템이 되었다.”고 개탄한다.

이러한 시장시스템이 가져오는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공적인 시장의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형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선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먼저 현 정책이나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보다, 거꾸로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규제 하나 하나를 시험하려면 끝없는 논란과 정치적 충돌이 일어난다. ...중략... 정부는 공공이 대학교육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에 부합하려면 어떤 전략적 개입이 필요할지를 묻는 것으로 출발함으로써, 훨씬 융통성 있는 시행 가능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학교육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하라

성공적인 시장형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크게 네 가지 분

야를 예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와 대학 간의 공공협약의 체결을 제시한다. 정부는 대학이 사회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런 뒤에 교육기관들과 협의하여 대학이 대학교육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정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누가 학습을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대학이 학습을 책임져야 할 것을 보장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사회유동성과 관련하여 대학교육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매우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는 교육과 봉사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쟁적 보조금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BK21 사업을 통해 연구분야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우리 대학 정책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장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그 변화의 중심에서 있는 것은 역시 대학이다. 저자들은 대학이 새로운 경쟁시스템에 적응하고 ‘대학다운’ 대학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계획의 수립이 그 핵심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시행가능 할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비전이 있어야 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대학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리더십은 개별 대학 뿐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반을 볼 수 있는 통찰이 요구되며, 대학교육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 대학들에게 앞선 미래의 위험 경고를 보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한 시장시스템에서 대학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대학이 자칫 그저 또 다른 이익단체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는 우리 대학지도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은 자신들의 경쟁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공공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했는가? 교육이란 단지 직업기술 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질 배양과 훈련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가? 장학금 등의 자

원활함에 따라 교육기간의 기본성격이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는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공유할 만한 경험은 무엇이 있나? 증거와 분석을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에 대해 열린 토론의 장으로 공동에 기여했는가? 아니면 기금 제공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 책임을 회피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저자들이 책의 말미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이 지금보다 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많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말에 공감의 간다.

필 · 자 · 소 · 개

이연택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관광정책연구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관광연구원 원장, 한국이미지정책포럼 대표, 문화관광부 관광정책자문 위원장, 한양대학교 교무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장, 관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관광정책론」, 「토론의 기술」, 「관광학 연구의 이해」 등이 있다.